

특례상장 바이오, 버블 주의보

>> 1면 '벤처지원 억지정책...'서 계속

코스닥벤처펀드, 시장 부실의 단초 바이오, 무형자산 인식논란으로 균열 특례상장서 정책 폭탄 우려 솔솔

뒤이어 나온 정책상품은 '코스닥 벤처펀드'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의 신규발행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도록 했다.

코스닥 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식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해당 펀드는 출시 8일(영업일 기준) 만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며 흥행가도를 달렸다.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코스닥 기업의 CB를 찾아다니기 바빴다. 0%대 금리의 CB도 불티나게 팔렸다.

결과적으로 당시 발행한 CB는 코스닥 시장 부실의 단초가 됐다. 만기가 도래하는데 주가는 하락하니 기관투자자들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기업들은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위기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 IT버블에 이은 바이오 버블

코스닥 지수를 900까지 끌어올린 주역인 바이오 업종은 현재 지수를 끌어 내리는 주범이 됐다. 한 때 바이오 기업의 임상 성공 기대감으로 주가수의 비율(PER)은 200배까지도 치솟았지만 이를 제어하는 시장의 견제는 없었다.

과도한 주가 상승에 증권가 리서치센터는 보고서 작성을 포기했다. 현재 주가는 어떤 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기업의 거품"을 지적한 애널리스트는 이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주주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바이오 버블은 무형자산 인식논란

으로 균열을 보였다. 당시 바이오 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모두 자산으로 처리해 이익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기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차바이오텍, 오스코텍, 티슈진 등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규모 자산을 부채로 처리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업계에서는 다음 정책 폭탄은 '특례상장'에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상장을 돕기 위해 기업공개(IPO)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평가 기준을 낮췄다. 또 소부장 펀드 활성화로 관련 기업들의 공급도 활발한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사상최대를 기록했지만 절반 이상이 공모가 보다 하락했다"면서 "분위기에 편승한 정책은 도리어 코스닥 시장 신뢰저하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신한銀 의료비 돌려받기 '더 빠르고 쉽게'

병원서 증빙서류없이 실손보험 청구

신한은행은 지안넷과 제휴를 통해 모바일 뱅킹 쏘(SOL)에서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의료비 돌려받기)'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는 쏘에서 8개보험사(삼성화재·NH농협손보·KB손보·흥국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의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앙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외 전국 26여개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주요 보험사와 병원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휴 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은 증빙 서류를 활용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보험사는 증빙서류 위·변조 행위를 차단



/신한은행

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 고객이 증빙 서류 발급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쏘는 다양한 독자적 생활금융서비스를 발굴 및 확장을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에 4000억 금융지원



'착한임대운동' 건물주에 금리 우대

우리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기관 특별 출연을 통한 30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 지원과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이를 재원으로 3000억 규모의 보증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음식·숙박·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 보증기관에 출연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역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현장실사 대행업무를 현재 9개 지역에서 기타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며,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전 소상공인 중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환 연장과 여신 분할상환 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최대 1.3%포인트까지 우대하며,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조건을 완화한다. 중국으로부터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으로 발생하는 가산금리(1.5%)를 면제하고 있으며, 해당어음의 부도처리 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했다.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를 우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경영지원과 무역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경기침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NH헤지자산, 코로나19에 컨틴전시 플랜 NH헤지자산운용은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최소한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립된 '비즈니스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업무 공간에서 최소 필수 인원이 상근한다고 24일 밝혔다. /NH헤지자산운용

'신한퓨처스랩' 연 2회 선발... 유니콘기업 발굴

신한금융, 스타트업 36개사 선정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대기업과 협력 국내 2개·해외 1개사 별도 선발

신한금융그룹은 24일 국내 금융권 최초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 6기 스타트업 36개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연간 1회로 진행하던 스타트업 선발을 상·하반기로 늘려 차기 유니콘 기업 발굴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6기 모집에는 800여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내부문 22개사, 글로벌 진출부문 14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먼저 국내부문에서는 구독경제 시대에 발맞춰 ▲개인의 월 정기 구독결제 해지, 가입을 관리해주는 '왓ساب(Whatsub)'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지와 상권을 분석해주는 '오픈업' ▲지역주민 참여형 P2P '투트에너지' ▲커뮤니티 기반 모바일 심리상담 플랫폼 '아토머스' ▲클라우드 데브옵스 자

동화 기술 제공하는 '인스랩' ▲온라인 취미생활 콘텐츠 플랫폼 '하비풀'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글로벌 부문에서는 ▲B2B이모티콘을 개발하는 '플랫폼(베트남 진출)' ▲온라인 판매자(셀러)를 위한 올인원 모바일 솔루션 '스토어카메라(인도네시아 진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 플랫폼 '빌드블록(미국 실리콘밸리 진출)' 등 글로벌 현지에서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기회를 얻었다.

이번 신한퓨처스랩 6기는 스타트업의 더 큰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업해 국내 2개사 및 해외 1개사를 별도 선발했다.

▲골목길·사유지 교통데이터를 수집하는 '알트레이' (현대자동차 그룹) ▲스마트 키오스크 통해 보험금 간편원스톱(one-stop) 청구하는 '이브이케어' (LG유플러스) ▲코딩교육 및 베트남 현지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멋쟁이사자처럼' (GS홈쇼핑) 등 3개 기업은 대기업 파트너사와 공동육성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5년 출범한 신한퓨처스랩은 지난 5기까지 총 136개사를 육성했으며, 현재까지 약 170억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6년 베트남 호치민,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신한퓨처스랩을 출범했다. 올해부터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와 협력을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까지 도울 예정이다.

신한퓨처스랩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선발기업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웹캠데이 행사를 취소했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6기 스타트업을 직접 만나 축하하지 못하는 대신 선발기업에게 신한퓨처스랩의 히스토리와 축하메시지를 담은 깜짝 영상메시지를 보내며 신한퓨처스랩 선발기업에 대한 그룹의 높은 관심을 전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銀, 시니어·외국인 돕는 스마트 ARS

하나은행은 음성 ARS 안내와 모바일 화면을 결합해 시니어와 외국인 손님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스마트 ARS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ARS 서비스는 직관적인 디자인과 간결한 메뉴 구성을 통해 보고 들으며 송금·거래내역 조회·환율조회·해외송금거래 등을 할 수 있어 음성 ARS에서 멘트를 끝까지 듣고 눌러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스마트폰 앱 이용이 어려운 시니어, 외국인 손님이 다양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해외 송금 시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캄보디아어·몽골어·미얀마어·영어·중국어 등 7개국어 문자 및 음성을 지원하고 최근 이용한 거래는 메인



화면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현해 접근성을 높였다.

한준성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스마트 ARS는 시니어 손님이 모바일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국어 문자와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금융 거래를 가능케 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